

## 정부의 벤처企業 創業 및 育成對策

이 인 수

국립기술품질원 품질안전부장

### I. 벤처企業의 現況 및 推進體系

#### 1 벤처기업 育成의 必要性

- 그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을 주도해 온 대기업 중심의 大量生産方式으로는 21C 知識情報化社會에 효율적으로 대응 곤란
  -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, Life-cycle 단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중심의 소량 다품종 생산이 바람직
- 또한, 우리 경제에 뿌리 내리고 있는 「高費用·低效率」의 경제 구조로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한계 노정
  - 고비용·저효율 구조는 기술·지식이 집약된 고부가가치 품목의 생산으로 대응
- 이같은 문제점은 성장이 빠르고 부가가치가 높은 벤처기업 육성을 통하여 해결함이 바람직

- 대량생산 체제를 다품종·소량생산체제로 전환이 가능
- 벤처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로 고비용 문제에 대처
- 벤처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로 저효율 문제를 극복
-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는 신규고용 창출에도 기여

#### 2 벤처기업의 概念 및 現況

##### □ 벤처기업의 概念

-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미국에 비해 위험성과 기술수준이 낮아 「신기술·지식집약형 중소기업」으로 이해함이 바람직
  - \*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점
    - 기술의 우수성 : 미국은 세계 최고의 핵심기술, 우리나라는 복제 또는 도입기술
    - 시장 규모 : 미국은 세계시장 겨냥, 우리나라는 수입대체, 일부 수출
    - 성공률 : 미국 10%, 우리나라 40%이상
- 법적인 개념(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, 4가지 유형)

구 분	기 준
벤처캐피탈투자기업	창투자, 신기술금융사로부터 총주식의 10%이상을 투자받은 기업
연구개발투자기업	R&D비가 5%이상인 기업
특허기술개발기업	특허, 실용신안등에 의한 매출이 총 매출액의 50%이상인 기업
신기술개발기업	13개 기술개발사업에 의한 매출이 매출액의 50%이상인 기업

##### \* 미국의 벤처기업 범위

- 미국 : 특별한 범위 없음
- 일본 : R&D 비율 3%이상으로 업력 5년미만 중소기업

- 대만 : 기술집약형기업(2년마다 정부에서 지정)

□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現況

○ 벤처기업수 : 2,000개(추정)

- 5인이상 중소기업 대비, 업체수는 2%, 매출액 5%, 종업원수는 3%로 아직 미미한 수준

- 영위업종은 정보통신(25%), S/W(29%), 산업기기(16%), 전자(29%), 의료·생명공학(8%)등 주로 첨단업종임.

○ 벤처기업의 특징

-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: 매출성장율은 3배, 영업이익율 3배, 기술개발투자비는 24배

- 자기자본 비율은 18.8% 수준으로 창업자금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< 벤처기업과 다른 기업과의 비교 >

구 분	중소기업		대기업(95)
	벤처기업(96)	일반기업(95)	
업체수	2,000	93,860	960
매출액(억원)	11,526	1,578,111	1,714,609
종업원수(천명)	92	2,171	1,070
매출성장율	40.4%	15.9%	22.3%
영업이익율	14.5%	4.6%	9.8%
자기자본율	18.8%	27.2%	20.8%
R&D 비율	11.0%	0.42%	2.57%

자료 : 벤처기업협회

3 推進體系

□ 법령정비

- '97. 8 :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정
- '97. 10 :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
- '97. 11 :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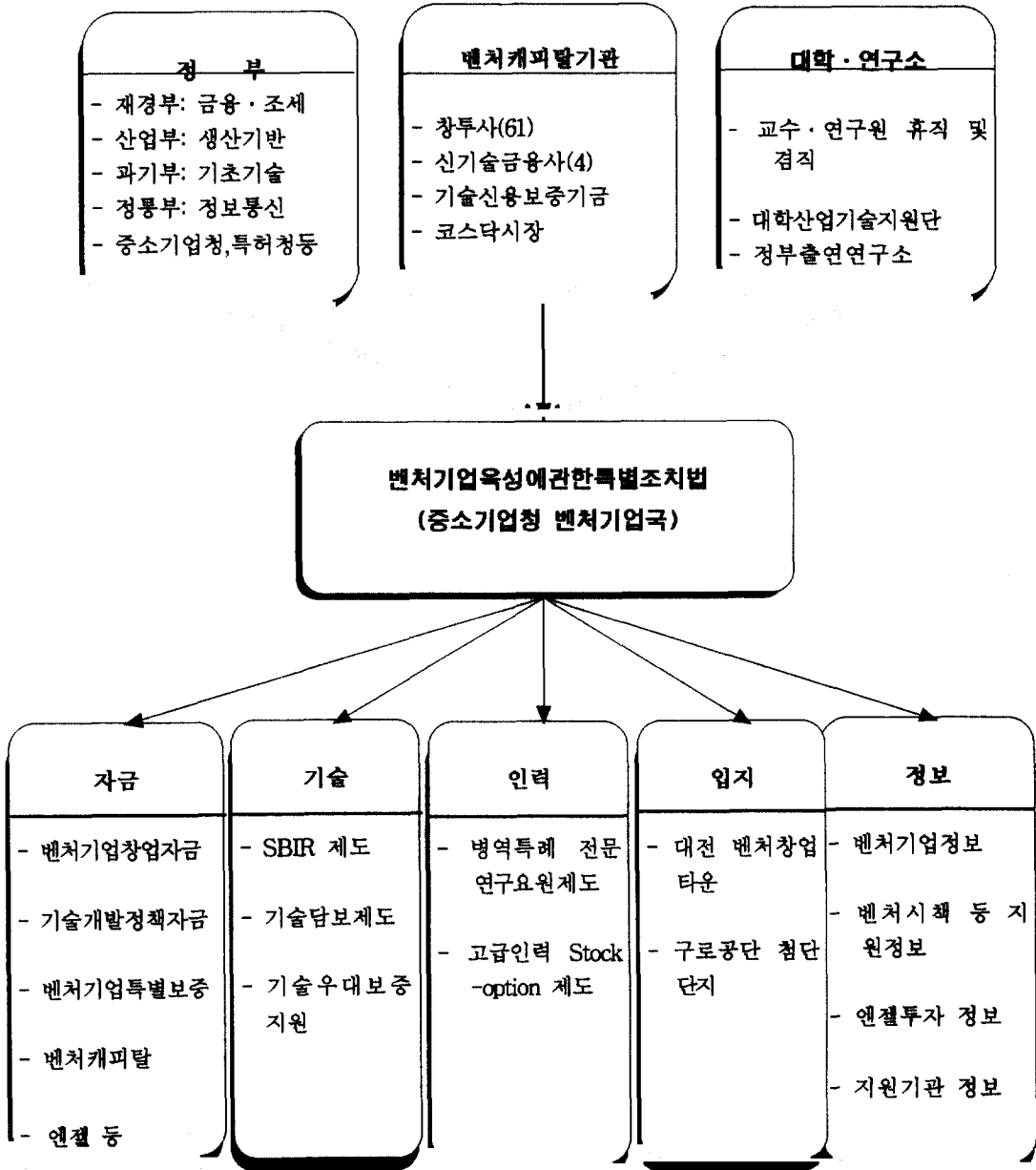
II. 장기발전비전과 당면과제

1 中小·벤처企業 長期發展비전과 期待效果

< 長期發展비전 >

○ 향후 5년간(98-2002), 2만개 벤처기업을 육성하여 전체 중소기업체 중 벤처기업 비중을 20%이상(2002)으로 확대

98년	99년	2000년	2001~2002년
3,000개	4,000개	4,000개	9,000개



□ 技術·知識集約型 産業構造로의 改編 促進

○ 2002년 벤처기업 비중

- 5인 이상 중소기업 대비: (97년말) 2% → (2002) 20%

○ 대기업 위주의 대량생산방식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전환 촉진

□ 經濟의 活力回復에 牽引車 役割 期待

○ 벤처기업은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매출액 증가율 및 영업이익율이 2~3배(96년)로 높아, 경제 활력 회복의 선도적 역할 기대

□ 40만명의 雇傭創出

○ 벤처기업 육성에 의한 직접고용 효과: 약 33만명

- 창업에 의한 신규고용 : 22만명
- 기존 중소기업의 벤처기업화에 의한 고용증가 : 11만명
- 벤처기업과 연관된 외주기업 등의 간접고용 효과 : 7만명

**2 中小·벤처企業의 創業活性化를 위한 當面課題**

- 벤처企業의 成長段階別 資金調達體系 構築
  - 창업초기 기업에 필요한 정책자금 부족 및 개인투자자(Angel) 기반의 취약
    - 취약한 벤처캐피탈 규모로 인하여 창업후 지속적 성장에 한계
      - \* 국내 벤처캐피탈 규모는 3조원 정도로 미국의 1/61
    - 코스닥(KOSDAQ) 등 직접 금융시장의 미발달로 성장기업의 자금조달 애로(중소기업의 직접금융조달비율 : 8.3%)
- 優秀人力の 벤처企業 流入 擴大
  - 우수 기술인력의 대기업 선호경향, 기술분야에 있어서 산·학·연 연대기반의 취약으로 우수인력 유입에 한계
    - \* 미국은 실리콘 벨리와 東보스톤 루트 128을 중심으로 산·학간의 인적 네트워크가 잘 발달
  - 스톡옵션제 등 우수인력의 유인체제 취약
- 技術力 補強
  - 벤처기업 전반의 기술력이 취약하고, 기술담보제 등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평가·인정할 시스템의 취약으로 기술력있는 기업의 성장발전에 한계
- 創業·成長空間 擴大
  - 벤처기업이 창업해서 입주할 집적시설·공간의 부족
    - 벤처창업의 산실인 창업보육센터가 전국에 12개에 불과

**III. 中小·벤처企業 創業資金 供給 擴大**

**1 IBRD차관자금의 效率的 活用**

- 支援 對象
  - 대학생·연구기관의 소속 연구원
  - 대기업, 중소·벤처기업 소속 기술자 및 연구인력
  - 기술사·발명가 등 전문 기술인력
  - 기존기업으로부터의 파생창업 및 창업 3년이내의 기업 등
- 支援計劃 (단위 : 억원)

단계	발굴지원기관	지원 방법	지원규모
창업	창업투자회사	- 창투사에 용자 - 창업자, 3년미만 기업에 투자	1,000
	기술신용보증 기금	- 기술신보(보증지원), 중진공(대출심사, 자금집행) - 창업자, 3년미만 기업에 용자	2,000
전환	창업투자회사	- 창투사에 용자금 지원 - 기존 중소벤처기업에 투용자	1,000

**2 벤처캐피탈 機能 活性化**

- 비상장법인에 대한 각종 연·기금 투자 확대

- 「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」에 투자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투자 실적이 전무
- 각종 연·기금(공무원연금 등 72종)의 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연기금관련법 시행령 개정 필요
-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
  - 외국인의 창투조합에 대한 출자시 요구불예금 예치 의무 및 신주투자 의무 폐지로 외국인투자 확대 유도(외국인투자자에 관한 규정 개정 필요)

### 3 대학(원)생 창업지원

- 支援規模 : 230억원(투자 80억원, 용자 150억원)
- 支援對象 : 대학생, 대학원생 등
- 支援方法
  - 투자자금(80억원)은 중진공에서 직접 심사하여 대학생 창업자에게 직접 주식투자로 지원
    - 업체당 투자금액 : 1억원 이내
  - 용자자금(150억원)은 한국기술금융(K-TEC)을 통하여 신용보증으로 용자지원
    - 용자조건 : 업체당 1억원 이내(금리 10.5%)

## IV. 벤처企業 創業基盤 構築

### 부세 1 코스닥(KOSDAQ) 시장의活性化

- 現況 및 問題點
  - 코스닥시장의 침체(IMF 이전에 비해 주가지수가 38% 하락)로 벤처기업 주식의 유동성·환금성이 크게 미흡
    - 코스닥 시장규모는 증권거래소의 1/13 수준이지만, 일평균 거래량은 1/227, 일평균 거래대금은 1/101 수준에 불과
    - 창업투자회사의 경우, 보유주식(액면가 기준 1,400억원)에 대한 거래실적 부진으로 투자자금 조달에 애로 가중

< 코스닥시장의 거래 현황('98.1~3월) >

구 분	코스닥시장(A)	증권거래소(B)	B/A
업 체 수(개사)	358	776	2.2
일평균거래량(천주)	365	83,078	227.6
일평균거래대금(백만원)	7,507	765,315	101.9
시장규모(액면가 기준, 백만원)	3,510,000	47,841,000	13.6

- 推進方案
  - 코스닥증권(주)의 시설 및 인력확충을 위해 자본금 증 자를 추진
    - 창업투자회사(61개사) 및 벤처기업 등의 출자를 유도
    - ※ 필요시 「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」에서 출자 검토
  - 코스닥증권(주)의 대표이사의 조기 선임 및 코스닥위원회의 조기 구성

### 부세 2 엔젤투자시장 開設 및 投資資金 擴大

- 現況 및 問題點
  - 코스닥시장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벤처기업과 개인투자자간 주식거래가 가능한 판매시장 개설 필요
    - \* 미국의 경우, 벤처캐피탈의 주공급원인 100만명의 엔젤이 연간 200억불 규모의 벤처캐피탈을 공급(창투사의 2배 규모)

- 개인투자자(엔젤)가 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직접투자하는 경우, 투자자금의 20%를 조세감면하고 있으나 실적 미미
  - \* 실적 : 7건 10.6억원

□ 推進方案

- 코스닥 미등록 벤처기업주식의 거래 활성화
  - 지역별로 「엔젤투자시장」을 개설·정례화하고, 미등록 벤처기업의 신주 및 구주거래를 앞선(지방 증기청)
  - 투자대상 벤처기업을 주식가치로 평가하여 투자희망자(엔젤)에게 제공(기술신보내 기술평가 센터를 활용)
- 엔젤투자자금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검토

**과제 3 벤처기업의 優秀 技術人力 供給 擴大**

□ 現況 및 問題點

- 우리나라 고급기술인력의 77%는 대학·연구소에 있으나, 산학연계시스템의 부족으로 기술·경영인력 활용도가 미흡
  - 교수·연구원의 휴직 및 겸직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나, 복직에 대한 불안감,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실적이 부진
    - \*실적: 포스텍기술투자회사(포항공대 교수), (주)MI(부산대교수)등
  - 또한 병역특례연구요원등 우수기술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통해 고급기술인력의 벤처기업 활용을 확대할 필요

□ 推進方案

- 교수·연구원등 기술인력과 벤처기업간 상호협약을 통해 기술지원과 주식(지분)을 연계하는 새로운 형태의 「스톡옵션제」 도입
  - 대학산업기술지원단,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스톡옵션 부여를 주선
  - 스톡옵션 행사시 소득세 감면대상 확대검토
-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제도 개선 추진(병역법시행령 개정)
  - 병역특례기관지정의 수시신청 허용(년1회 → 년2회이상)
  - 병역특례연구요원의 벤처기업 전직허용 및 파견제한 완화

**과제 4 벤처기업에 대한 情報支授 強化**

□ 벤처 넷(Venture Net) 設置·運營

- 벤처기업 창업관련 기관을 네트워킹화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원스톱(one-stop service) 체제를 구축
  - 중소기업청, 진흥공단, 기술신보, 정부출연연구기관, 벤처기업협회, 벤처캐피탈협회 등
- 벤처 넷(Venture Net)에 「벤처기업전용방」 개설(98.5월)
  - 벤처기업과 대학, 회계법인, 법률전문가 등과 컴퓨터로 연결하여 경영 및 기술적 애로를 자문 및 해결
  - 단계적으로 생기원, 전자통신연구소(ETRI),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인력정보망과 연결하여 국내 경영 및 기술인력을 최대한 활용

□ 벤처로드맵(Venture Road Map) 製作 普及

- 최근 대기업의 사업분리등에 의한 파생창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기존 벤처기업과의 과당경쟁 및 중복투자 유발 우려
- 국내 벤처기업의 품목별 업계동향 및 시장구조를 DB화한 「벤처로드맵」을 작성하여 창업자에게 제공(98.10월)
  - 벤처기업의 품목별 기술수준, 시장동향 등 정보 제공

**과제 5** 大學生 등에 대한 創業 雰囲気 擴散

- 現況 및 問題點
  - 모험심이 강한 젊은 층의 창업열기가 저조하고, 대학생들의 창업 동아리활동도 미흡한 실정
    - 현재 26개 대학에서 창업동아리 활동중
- 推進方案
  - 젊고 패기있는 세대들의 창업분위기 조성
    - 대학별 창업동아리 구성 확대('97 : 26대학→'98 : 80대학)
    - 대학생 창업경연대회, 대학별 벤처로드쇼 (20회) 등 개최
  - 창업강좌 확대 실시
    - 대학·연구소에 창업교실을 개설하여 예비 창업자를 양성(97: 21개 기관 3,150명→ 98: 41개 기관 5,200명)
  - 대학생 창업자만을 위한 별도의 지원체제 구축
    - 진흥공단내 「대학생 창업 훈련과정」 신설
    - 창업지원자금중 일정액을 대학생 창업자에 할당하여 무담보 신용보증에 의한 지원(1억원 한도)
- 벤처기업 성장여건 조성을 위한 대학역할 강화
  - 대학의 자율적 벤처기업 운영 및 벤처기업 직접투자 확대
    - 대학이 자율적으로 벤처기업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부족예산 충당 또는 연구와 실무를 직접 연결
      - 주성전문대(청주)산학연구소에서 (주)주성, (주)한국R&M 운영
        - 세라믹을 이용한 이동통신부품 및 자동차 부품개발 생산(약 150억원)
  - 대학(사학재단)에 의한 벤처기업 직접투자 활성화
    - 대학이 엔젤로서 교내에서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직접투자
      - 스탠포드大 : 700만\$( '85 ) → 2,500만\$( '93 )
      - 하버드大 : 800만\$을 투자한 Tristar Picture사가 '91년 소니에 인수되면서 3,000만\$의 투자자금 회수
  - 대학별 기술창업네트워크(Technology Incubation N/W) 구축
    - 대학, 정부지원기관, 법률·경영 및 금융자문단, 창업투자회사 등 각종 지원인프라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종합네트워크 구성
      - 창업보육센터 운영 (호서대, 서울대, 울산대, 연암공전등)
  - 여성인력의 창업촉진을 위한 여성 전문창업교육 내실화
    - 기술력을 가진 여성고급인력의 섬세한 감각과 두뇌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의 창업지원 특별 강좌 개발

**과제 6** 벤처기업 創業空間의 擴大

- 現況 및 問題點
  - 벤처기업 창업공간이 절대 부족
- < 창업공간 확보 현황 >

구 분	현 황			소 관
	계	가 동	건설중	
창업보육센터	12	8	4	중소기업청
신기술보육센터	29	11	18	산업자원부

- 推進方案
  - 창업보육센터 건립 확대
    - 2002년까지 60개의 보육센터를 건립, 1,000개 업체 입주 지원
  -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타운 조성

- 향후 5년간 전국 주요 도시에 10개의 벤처타운을 조성, 벤처기업에 원 루프(one-roof) 서비스 제공
- 벤처집적시설의 확충
  - 도심의 민간 인텔리전트(intelligent) 빌딩을 벤처기업의 창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벤처 집적시설로 지정
  - \* 98년중 창업보육센터 8개소, 벤처타운 1개소를 건립추진하고,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

**과제 7 | 벤처기업 育成施策의 有機的 統合·調整**

現況 및 問題點

- 현재 벤처기업육성시책은 산업자원부, 정보통신부, 과학기술부 등에서 추진됨으로 인해, 대상의 중복 및 비효율성 초래 우려

	산업자원부 (중소기업청)	정보통신부	과학기술부
○ 주요대상	○ 일반제조업	○ 소프트웨어산업	○ 기초기술응용분야
○ 지원자금	○ 창업투자회사자금 ○ 기술혁신개발자금 ○ 공업기반기술개발 ○ 창업진흥기금	○ 정보통신기술개발자금 ○ 국책연구개발사업 ○ 정보화추진기금	○ 한국종합기술금융(주)사업자금 ○ 과학기술진흥기금 ○ 특정연구개발기금
○ 사업내용	○ 창업 촉진·지원 ○ 기술개발지원 ○ 창업투자회사 운영 ○ 기타벤처육성 종합대책 수립	○ 창업지원 ○ 기술개발지원 ○ 보육센터 등 입지지원	○ 기술개발지원 ○ 보육센터 등 입지지원
○ 관련법령	○ 창업지원법 ○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○ 중소기업진흥 및 구매촉진법	○ 소프트웨어촉진법 ○ 정보화통신기본법	○ 기술개발촉진법 ○ 과학기술혁신 특별법

推進方案

-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실무위원회를 통해 부처간 협의·조정  
위 원 : 관계부처(산업자원부, 과학기술부, 정보통신부 등) 1급  
벤처캐피탈협회장, 벤처기업협회장, 전문가 등
- 기능 : 벤처기업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사전 통합 조정토록 함